

지역 소식통

정읍 체력인증센터 대학생 기자단 모집

정읍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정읍 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대학생 현장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한다.

대학생 기자단은 각종 지역 축제와 온라인상에서 국민체력 100 사업과 정읍체력인증센터 알리기에 합심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개인 SNS와 정읍체력인증센터 블로그 등에 국민체력100 사업과 정읍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활동 내용을 업로드하며 홍보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기자단은 이달 19일까지 모집하며 매일 소정의 수당도 지급한다. 국민체력100 사업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사업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청소년 코로나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간 운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 사태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청소년 및 가족들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코로나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간'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블루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평소와 다른 생활주기의 변화된 상황들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인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유 계획'을 수립하여 비대면상담으로 온라인심리검사 및 심층상담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대상 치유활동에 동의한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치유 활동을 제공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원전 불안감 해소 '첫 발'

뉴스분석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

유기상 고창군수 "숙원 해결, 주민안전 최우선 노력"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지자체장 권한 강화 등 주력

최근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서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감시센터 개소가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떤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고창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창군 관내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설치 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은 고창군과 이웃해 있어 원전사고에 대비해 영광처럼 고창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창군에 부는 바람의 80%는 한빛원전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 피폭 가능

성이 크다 반면 고창군은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려웠다.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도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설치를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산업부 등을 방문해 국회화보 건의 등 총력 대응해 왔다

특히 잇따르는 원전 안전사고 등으로 주민 불안감이 크고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고창군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를 계기로 고창군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의 경우 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재대책 재원 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와 지자체장의 권한도 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근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서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식이 열렸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1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군민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의 알권리 풀어줘야"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민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1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군민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도 형식적인 용역을 추진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로 직접 추진해 달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민들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영농지도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농가들이 수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에 특수시책 추진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공중보건의·구급차 상시 배치 등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정읍면 양지마을에 대해 지난 8일부터 마을 전체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지역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다.

마을 전체를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마을주민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해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2가구 75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양지마을에 대해 시는 주민 간의 접촉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마을 이동 제한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확진자 여부에 따라 통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관련해 시는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제한에 따른 특수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을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지마을에 원스톱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4명의 공무원을 현장 배치해 불편 사항 또는 시정 건의 사항을 수렴 즉시 전달하고 민원 접수일로부터 3일 내 해결방안을 강구 및 처리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구급차를 상시 배치한다

이와 함께 양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대응팀(T/F)도 가동한다. 긴급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응을 비롯한

장단검역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등을 지원한다. 또, 역학조사 방해와 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고 주민 안전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활약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 긴급재난지원금 26가구 44명에 1인당 50만원

유진섭 시장은 12일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총 26가구 44명에 대해 약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고창읍 월곡근린공원을 자기발전 놀이시설, 나무, 흙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놀이터로 재단장했다.

월곡근린공원, 친환경 생태놀이터로 단장

자가발전 놀이시설 설치 등

고창군이 고창읍 월곡근린공원을 자기발전 놀이시설, 나무, 흙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놀이터로 재단장했다.

월곡근린공원은 월곡택지개발 당시 공원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설치된지 20년이 넘으면서 놀이터 등이 노후돼 이용을 꺼려왔다.

이에 고창군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놀이시설 교체, 경관개선, 환경인식

개선 등을 진행했다. 월곡근린공원 놀이터에는 ▲자가발전 놀이시설 ▲조합놀이대 ▲원통나무 통과하기 ▲나무오르기 ▲바구니 그네 ▲농소화 터널 등 다양한 생태놀이터로 꾸몄다.

특히 자전거의 동력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작동하는 '협식식 모노레일', '회전시소', '회전놀이' 등 3종의 자가발전 놀이시설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와 교육을 겸비한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탄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